

NATIONAL MUSIC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둘러싼 문제들

전지영 | 음악평론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4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생존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적지 않은 진통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경제의 외세 종속과 억압의 구조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모순구조 등 결코 즐겁지 않은 기억들과 여전히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왜곡구조가 도처에 깔려있는데……. 여러 가지 국악계 전반의 큰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1965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국악관현악을 이끌어온, 국악관현악의 대명사와도 같은 악단이다. 1965년 당시 국악예술학교 관현악단을 서울시립화 하면서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출범했고, 1980년대 전반에 전국에 국악관현악단들이 줄지어 탄생되기 이전에는 거의 유일한 국악관현악단이기도 했다. 이후 약간 정체된 듯한 모습도 있었지만, 2001년 이후 새로운 지휘자를 영입하면서 다시금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국악계를 대표하는 메이저 악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대표적인 악단이고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국악관현악단인 만큼 생존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적지 않은 진통을 겪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것은 1988년 5월에 시립교향악단과의 차별을 철폐하라는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점잖음을 미덕으로 삼는 국악계에서,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악단의 단원들이 무려 보름동안이나 철야농성을 했던 이 사건은 국악이 관련된 전대미문의 단체행동이었고,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도 있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단원들에 대한 해고문제나 임금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 왔는데, 그때마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악단 예술성 제고 등의 명분을 내세웠고 단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부당대우 개선 및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필사적으로 맞서왔다.

폭풍에 휩싸인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그런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또 다시 사나운 폭풍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는 또한 비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의 공통적인 폭풍이

기도 하다. 단원들은 최소인원 만을 제외한 채 대부분 쫓겨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40년 전통의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불안감의 차원이 아니라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여태까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겪어왔던 어떤 사건보다도 큰 상황이다. 이미 지난 6월, 서울시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단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89억 원의 임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단체를 전속 단체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폐지하고, 상근 단원을 줄이는 구조조정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사실 이 문제는 지난해 세종문화회관 신입 사장 부임 때부터 예견되어 있던 것이다. 김용진 사장은 부임 때부터 예술단체의 기량 향상을 위해 단원들의 상시평가제나 오케스트라의 전면적인 물갈이 및 강력한 구조조정을 말해 왔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향이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로부터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떨어져나가면서 기존 단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그런 전철을 밟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한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단원들에게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노조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하였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공연에 대해 (낮은 완성도로 인해) 서울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고, 예술성 제고와 시민들에 대한 우수한 문화상품 제공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단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단원들의 반발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로 매도되었고, 일부 언론에서 이에

동조하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연습-공연은 대충대충, 뭉 찡길 땀 빈틈없이' (동아일보 6. 23), '단조로운 공연+기획력 부족+공짜표 남발-세종문화회관 적자 3박자' (조선일보 6. 23), '예술은 게으른 사람의 안식처가 아니다' (동아일보 6. 24) 등이 단적인 예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매년 310억 원 가량을 세종문화회관에 지원하고 있다. 작년 2004년에 세종문화회관 9개 예술 단체의 공연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은 단원급여 89억을 포함하여 114억 3,500만 원이며, 공연 수입은 14억 8,000만 원이었다. 이런 적자구조와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강력한 의지'는 현재 실천중이고, 그 실무책임은 각 단체 단장들에게 지워졌다. '이행 의지가 부족한 단장에 대해서는 임금삭감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엄포에 각 단장들이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노조가 공개한 세종문화회관 측의 오디션 평가지침에는 단원들을 탁월 10%, 우수 20%, 보통 50%, 미흡 20% 등 4개 등급으로 나누는 강제배분식 상대평가제의 실시, 전 단원을 오디션 대상의 문제단원으로 지적하는 평가의견서 제출, 문제 단원들에 대해서는 11점 이상의 감점 부여('주의'를 줄 수 있는 점수는 10점 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단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한배를 탄 선장으로서의 단장이 자신들을 최대한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지만,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는 단장은 그런 단원들의 기대를 따라주지 못했고, 급기야 7월 26일 단원평가에서 무려 20명이 '주의'를 받은 '문제단원'으로 평가받게 되었다.(올해 1월 1일부터 7월 25일 이전까지 두 차례 상시평가에서는 '주의'를 받은 단원은 1명도 없었다)

경쟁력 제고와 그를 위한 체질개선 노력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요악처럼 간주된다. 문제는 예술단체를 수익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는 서울시의 신 자유주의적 경쟁논리, 그리고 그에 대립하는 단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요약된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 전경

이 때문에 단원들의 분노의 화살이 단장에게 집중되었고, 지금도 진통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9월로 접어들면 아예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들의 해체 작업이 진행 될 것이고, 결국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상근단원을 모두 없애며, 외부 민간단체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모두 쫓겨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걸 세종문화회관 산하단체들의 전반적인 문제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단의 요람이었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유일한 국악관현악단으로 외롭게 국악관현악을 고집해온 악단이기에 때문에 다른 단체 단원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 좀 더 절실함이 있다. 또한 국악계의 원로들과 유명 연주자들 상당수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거쳐 간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악계 전반의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예술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이 문제는 한마디로 예술단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건비 89억에 수익 14억이라는 적자구조, 이것만 보면 틀림없이 뭔가 손을 좀 봐야 한다

는 생각이 든다. 최악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그대로 두고 싶은 CEO는 없을 것이다. 경쟁력 제고와 그를 위한 체질개선의 노력은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요악처럼 간주된다. 예술단체를 수익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는 서울시의 신 자유주의적 경쟁논리, 그리고 그에 대립하는 단원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이 문제는 요약된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그동안 공연들의 낮은 품질을 지적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이야기하면서,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단원들의 무사안일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단원들의 집단 이기주의나 '철밥통주의'가 있을 수 있다. 이걸 국공립 단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흠집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에 사태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서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측이나 단원측 모두 핵심을 벗어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운영의 적자는 기획 및 운영자의 책임이지 단원들이 책임 질 일은 아니다. 단원들은 어디까지나 고용된 노동자들이며, 가용인력을 최대한 잘 조화시키고 단련시켜서 최선의 상품과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원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운영진의 책임이다. 따라서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이 겪어온 적자구조를 문제삼고자 한다면, 문제점은 단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단원들의 무사안일과 무능력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에 가깝다. 단원들인들 좋은 무대에서 좋은 공연하고 박수갈채를 받고 싶지 않겠는가? 어떤 단원이 청중들도 없는 곳에서 낮은 완성도의 공연을 보여주고 싶겠는가? 그런 면에서 '공연사업 예산을 늘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줄이거나 단체를 없애는 것은 세종문화회관의 기획력 부족을 단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한편, 단원들 입장에서도 비판과 저항의 화살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들의 대부분 비판은 단장에 대한 것이고, 모든 분노 역시 단장을 향해 표출되고 있다. 하지만 단장 역시 평단원들과 같은 임금노동자에 불과하다. 단장은 고용주나 사측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고용되어 자신의 예능과 노동력을 파는 존재이다. 단장이나 단원 모두 자본주의 사회가 강제하는 예능의 상품화와 노동력에 의해 존재하며, 단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듯이, 단장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측의 압력이라는)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존재이다. 단원들의 투쟁의 대상은 오히려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 핵심관계자들이 되어야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공정한 평가가 요구되는 오디션

오디션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하는 지점이다. 이른바 강제배분식 상대평가제라는 극한의 경쟁논리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구조조정과 인적쇄신을 위한 가장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식이 되겠지만, 단원들 입장에서는 서로간의 반목과 비인간적 관계를 양산하는 최악의 방식이다. 이른바 '공정한 오디션',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지난 7월 26일 평가에서(그 이전에는 '주의'를 받은 단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단원 20명이 '주의'를 받은 대상이 된 것은,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공정한 평가의 결과인 것이고 단원들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평가의 폭력인 것이다.

단원들 오디션은 물론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오디션은 결코 공정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어떤 마인드로 심사를 하는지에 따라 오디션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어

는 예술분야나 마찬가지로겠지만, 국악 역시 연주자에 따라 예술적 지향이 다르고 연주법이나 취향의 개성이 저마다 있으며 소위 '범통'도 저마다 다르다. 때로는 개성과 범통의 차이가 실력의 차이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실력의 차이가 개성과 범통의 차이로 둔갑하기도 한다. 또한 국악계 자체가 워낙 좁다보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인맥관계가 구축돼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심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오디션의 엄격함 또는 공정성이란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굳이 이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단원들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핑계와 구색에 불과할 수 있다. 실지로 오디션이라는 것은 악단의 질적 제고를 위한 측면과 불편한 인물을 슈아내기 위한 측면, 양쪽 모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이 질적으로 훌륭하고 예술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서라며 단원들의 역량을 문제삼는 것은 책임전가이며, 진정으로 시민들에 대한 문화적 의무감을 다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무기로 단원들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책임감과 참신한 기획, 유능한 단장의 영입과 강도 높은 연습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공연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며, 그 과정에서 역량상 문제 있는 단원들이 있다면 자연 도태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비효율과 낮은 수익성을 문제삼는 것도, 뒤집어보면 서울시민을 위한 문화적 봉사과 예술의 진정성 측면에서 반박할 수 있다. 서울시가 보이고 있는 신 자유주의적 경쟁논리와 효율성 지상주의는 도리어 예술의 진정성을 획득할 수 없게 한다.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 지금 논의되는 것처럼 단원들에 대한 임금까지 전액 삭감하고 서울

이 문제가 국악계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지난 40년을 통해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국립국악원과 함께 국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기라성 같은 유명 연주자들이 거쳐 간 곳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마치 고향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제272회 정기연주회

시 재정지원이 크게 축소된다면, 생존을 위해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한 세종문화회관 각 전속단체들은 (물론 질적인 제고의 노력이 따르겠지만) 공연의 성공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중성을 전면에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람비용 역시 급격히 상승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공연 때마다 김희조 합주곡들을 빼놓지 않았던 모습들은 사라질 것이고, 당장의 화려함과 일회적 열기를 앞세운 레퍼토리가 주를 이룰 수도 있다. 구조조정과 질적 제고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소수(그것도 기꺼이 관람료를 비싸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계층만을 위한)를 위한 예술로 전략할 우려가 커지며,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차피 국악관현악이라는 것이 대중성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고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아예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을 없애버리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경쟁을 통한 질적 제고와 효율성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예술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간주하는 데서 나오는 발상이다. 경쟁이나 효율성이라는 것이 모두 가장 자본주의적인 용어이며,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영혼을 팔 수밖에 없는 노동자로 예술가를 변질시킨다.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원들 역시 예술인이기 이전에 노동자이다. 생존의 위기 앞에 서있는 단원들이나 사측의 강요에 의해 악역을 맡고 있는 단장이나 모두 노동자들이고

각자의 지점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효율이라는 이름이 강요하는 비인간성이 극대화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때로는 예술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호도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술의 진정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화려하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만의 화려함이다. 눈부신 화려함 뒤에는 늘 노동자들의 고된 삶과 땀과 눈물이 이면의 어둠을 장식한다. 효율을 가지고 화려함의 불길을 가속화하려는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예술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는 지금도 절묘하게 대비된다.

화려함 뒤에 가려있는 어둠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은 세종문화회관 전속단체 중 하나 이면서도 다른 단체들과는 또 다른 애환이 있다. 그것은 '국악'을 가장 오랫동안 연주해온 단체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문제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산하단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악계 전체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은, 지난 40년을 통해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국립국악원과 함께 오랫동안 국악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왔고, 수많은 기라성 같은 유명 연주자들이 거쳐 간 곳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마치 고향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및 계속되는 해체설로 인해 위기에 몰린 단원들과 달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문화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수백 억을 들여 화려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야심에 찬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오페라와 관련된 화려한 청사진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절박함의 대비를 지켜보는 국악인들은, 현재의

사건이 세종문화회관의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로서가 아니라 국악이라는 척박한 땅에 터를 잡고 사는 자신들에 대한 또 하나의 작은 비수로서 다가옴을 느낀다. 이는 또한 전체 국악인들이 가지는 박탈감과 허탈함이기도 하다. 웬지 문화의 도시라는 이름(허세)으로 가려진 기득권만의 찬란함과 서민들의 고통,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억압의 구조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이름과 오버랩 된다. 오페라라고 하는 막대한 자본이 동원되는 예술에 수백 억의 예산이 거론될 때 배고픈 창곡인이 느끼는 좌절감도 떠오른다. 화려한 개발시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철거민들의 아픔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지 모른다. 화려함을 위해 '죽어줘야' 했던 아픔, 그건 어찌면 역시나 문화도시라는 화려함을 위해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 '죽어줘야' 하는 국악의 모습과도 같다.

현재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도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머나먼 땅이며 만 원짜리 몇 장 가지고는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다. 하지만 바로 옆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리는 소리극들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한가!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어두움이 있고, 늘 그렇듯이 화려함은 소수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고 어둠은 다수가 감내해야 하는 몫으로 남는다. 단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앞세우는 땅에서, 오페라하우스의 화려한 청사진은 있어도 판소리 전용극장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기득권 유지에 필요한 전시효과를

위한(뺏세의) 황새 흉내내기와 문화사대주의¹⁾, 그리고 가장 철저한 자본의 논리는 전면에서 있어도, 인간성과 문화적 주체성은 뒷전에 있다.

해방 60년이 됐지만 우리의 문화예술에 아직 해방은 없다. 문화적 종속과, 너무나 철저해서 사대주의인지조차 잘 알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문화적 사대주의가 지배한다. 그리고 지난 60년 동안 그래왔듯이, 지금도 여전히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예술의 지배와 왜곡구조는 진행되고 있다. 지금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런 점들을 모두 담고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노동자로서의 단원들, 그들은 효율과 경쟁을 앞세운 이데올로기에 의해 규정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동시에 우리 모두의 것이면서도 소수의 전유물처럼 전락해버린 국악의 담당자들이다. 그들이 바라보는 오페라하우스와 문화도시의 청사진은 서울시합창단이나 뮤지컬단, 또는 오페라단이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갖는다. 문화적 종속과 사대주의를 피부로 느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안다. 정치·경제의 외세 종속과 억압의 구조, 외세 침략과 주체성 상실의 구조,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모순구조, 결코 즐겁지 않은 기억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문제를 통해서 어찌면 이렇게 절묘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1)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위해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근사하고 멋있는 오페라극장 하나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주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